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6490 |
|----------|------|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발 의 자 : 김영호 · 강경숙 · 최보운  
박지원 · 김문수 · 백승아  
김한규 · 이광희 · 윤건영  
김준혁 · 김태년 · 박희승  
김준형 · 박해철 · 김선민  
박홍배 · 신정훈 · 어기구  
박 정 · 이해식 · 박지혜  
전재수 · 강준현 · 문정복  
고민정 · 한창민 · 서왕진  
정진욱 · 나경원 · 소병훈  
박은정 · 안태준 · 김기표  
전종덕 · 정태호 · 이용선  
박성준 · 김남근 · 김민석  
정성호 · 김남희 · 김종민  
최수진 · 박주민 · 박수현  
진선미 · 정혜경 · 서영교  
박홍근 · 한병도 · 권칠승  
서미화 · 민병덕 · 박충권  
김주영 · 진성준 · 윤종균  
박상혁 · 김원이 · 김병주  
복기왕 · 황정아 · 윤종오  
김영환 · 차규근 · 문진석  
송재봉 · 정희용 · 정준호

이재명 · 이용우 · 용혜인  
이재관 · 남인순 · 한민수  
박정현 · 전용기 · 염태영  
김용민 · 이성윤 · 전현희  
김태선 · 강선우 · 채현일  
정을호 · 문대림 · 위성락  
오세희 · 박용갑 · 김예지  
김 윤 · 조계원 · 민형배  
권향엽 · 문금주 · 윤준병  
이병진 · 이연희 · 전진숙  
이훈기 · 임호선 · 이수진  
황명선 · 최민희 · 정일영  
허성무 · 장철민 · 안도걸  
신장식 · 김동아 · 김영배  
맹성규 · 박민규 · 백혜련  
신영대 · 이학영 · 이재정  
안규백 · 최기상 · 김우영  
서삼석 · 박선원 · 허 영  
임미애 · 노종면 · 추미애  
김영진 · 천준호 · 황 희  
서영석 · 이개호 · 오기형  
이인영 · 정동영 · 강득구  
정청래 · 유동수 · 송기헌  
강훈식 · 이춘석 · 김교홍  
김정호 · 조인철 · 송옥주  
조정식 · 이소영 · 이기헌  
김현정 · 조승래 · 이원택

허종식 · 이강일 · 위성곤  
박범계 · 안호영 · 정춘생  
황운하 · 홍기원 · 이해민  
주철현 · 한정애 · 민홍철  
이재강 · 이진태 의원  
(164인)

## 주 문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줄세우기식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상실케 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교육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한 지원 없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

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3.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을 지향한다.
4.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을 확충한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6.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에 동참한다.
7. 정부는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 방안과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경쟁 사회가 심화 될수록 성장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된 교육환경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적

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은 학습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교육은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면, 이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 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

을 받지 못함”. 등을 지적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줄이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결의한다.